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민정 신성만†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이 이들의 한국사회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북 P시, D시, 경남 B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153명을 대상으로 사회문화 적응과 심리적 적응(결혼 만족도, 삶의 만족도), 그리고 문화적 역량(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문화적 태도, 문화적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와, 문화적 역량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의 사회문화 적응 수준은 보통, 결혼 만족도는 약간 만족, 삶의 만족도는 약간 불만족으로 대체로 적응수준이 양호했다. 문화적 역량 수준은 문화적 태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문화적 기술,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순이었으며, 이 중 문화적 태도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높았고, 문화적 지식을 가장 중요하며 동시에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17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 거주 지역, 남편의 학력, 경제 수준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문화적 역량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문화적 역량은 사회문화 적응,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그리고 문화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적 역량의 하위유형들 중 사회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지식이었고,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태도였으며, 전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지식과 태도였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적응의 주체로 바라보며, 이들의 적응과 문화적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문화적 역량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여성 결혼이민자, 사회문화 적응, 결혼 만족도, 삶의 만족도, 문화적 역량

* 본 논문은 김민정(2010)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교신저자 : 신성만,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번지
Tel : 054-260-1333, E-mail : sshin@handong.edu

한국 사회는 급격한 외국인 인구의 유입으로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김연수, 2007; 김연희, 2007; 변화순, 이미정, 김혜영, 황정미 & 이선형,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09).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와 가족체제 유지의 대안으로 여겨지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영구적 정착을 허용하고 있어 이주민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변화순 외, 2008).

점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장기적 거주가 본격화되고, 자녀들이 학령기가 되면서 이들의 부적응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김연희, 2007; 김선희 & 전영평, 2008; 장미혜 외, 2008). 많은 선행연구와 실태조사(김영란, 2006; 김이선, 김민정 & 한건수, 2006; 설동훈, 이해경 & 조성남, 2006; 한건수, 2006; 박주희 & 정진경, 2007; 심인선, 2007; 정천석 & 강기정, 2008; 최운선, 2007)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정과 사회 내에서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될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높은 이혼율(박재규, 2007; 서해정 & 김형모, 2009) 역시 이들의 부적응을 반증하는 현상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가정을 통해 세대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면서 한국사회에 정착해서 살아간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비교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으며(김선희 & 전영평, 2008) 정부에서도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변화순 외, 2008; 행정안전부, 2008).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들은 여성들의 인권보다는 그들의 자녀와 가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최운선,

2007), 이들이 가진 문화적 인적 자원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재 문화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며(김이선 외, 2006)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등 동화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김연희, 2007; 이선옥, 2007; 변화순 외, 2008; 엄한진, 2008; 정귀자, 2009)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의 증가로, 최근 다양한 종류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또한 한국어나 한국요리, 가족교육, 일회성 문화 체험 학습이나 문화축제 등 같은 단순문화교육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윤형숙, 2004; 김이선 외, 2006; 문화관광부 &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6; 김이선 외, 2006; 심인선, 2007; 권미경, 조용하, 2009). 물론 이들에게 한국어나 가족문화 교육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이러한 몇 가지 주제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장장 적이고(김연희, 2007), 자문화 중심적인 특성을 가지며, 여성 이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동화할 것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윤형숙, 2004; 김이선 외, 2006; 한건수, 2006; 김선희 & 전영평, 2007; 오경석, 2007; 이선옥, 2007; 엄한진, 2008; 변화순 외, 2008).

일반적으로 적응은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동시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Lazarus, 1976), 혹은 개체가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개인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끼며 사회적으로는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이고 능률적

으로 해결하는 상태(Gates, 1986)등으로 정의된다. 이것을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여성이민자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의 요구와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과제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하고,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우리 사회가 적응이라는 이름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은 한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맞추라는 강요에 가까워 보인다. 진정한 적응의 의미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는 이주민들에게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 데만 초점을 둔 접근에 대한 재평가와, 그러한 접근 방법에 깔려있는 가부장적 문화나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서비스 제공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김이선, 2007). 안상근 경남발전연구원장은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 지원방안(2008)” 서문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의 우리 입장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도와주려 했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고,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6문화예술 정책백서”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동화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사회적 일원으로 잠재력을 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교육은 “이민자들의 자기발전의 즐거움을 고취시키고, 삶에서 사회적 소통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창조적인 삶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기선, 김영혜, 박경은, 이은아, 박지혜, 이승애, 이지혜, 2007)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다른 언어적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Fantini, 2007)을 말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응을 도우려면 우리 사회나 서비스 제공자들 뿐 아니라 적응의 주체인 여성결혼이민자들도 다문화적 시각과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문화적 역량 측면에서의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 하려고 한다.

적응

Gates(1986)는 적응을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정의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끼며 사회적으로는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상태라고 보았고, Allport(1961)는 환경에 대한 자발적이고 창조적 행동을 통해 개인이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사회의 가치와 질서에 합치되는 상태라고 했다. 개인은 적응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에 맞는 행동양식을 보이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기대되는 외적 요구와 개인의 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윤인진(2000)은 적응을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환경과의 조화를 이

림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보았고, 김경은과 정옥분(1997)은 적응을 “외적 적응”과 “내적 적응”으로 분류하면서, 외적 적응이란 개인이 사회문화적 규범에 근거한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타인과 협동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지는 객관적이고 사회적 측면의 적응이라고 정의했고, 내적 적응은 자신의 가치 기준이나 요구 수준에 견주어 자기 충족감, 자존감, 행복감을 갖는 것과 같은 주관적이고 자아적 측면의 적응이라고 정의했다.(김경은 & 정옥분, 1998). 일반적으로 이주민의 적응 관련 문헌에서는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구차순, 2007).

문화적응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자신과 문화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사람이나 집단, 혹은 사회적 영향과 접촉할 때 일어나는 변화(Gibson, 2001)를 일컫는다. Berry(2005)는 문화적응을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문화집단과 그 속의 개인구성원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화적, 심리적 변화의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즉,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안정되게 지내는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다(구차순, 2007).

초기에 문화적응은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집단수준의 변화(Redfield, Linton & Herskovis, 1936)로 정의 되었으나, 후에 심리학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포함한 개인 수준에서의 변화로 개념화되었다(Berry, 1997).

Graves(1967)는 새로운 문화를 접한 결과 나타나는 집단의 문화적 변화를 뜻하는 집단수준으로서의 “문화적응”과 개인수준의 현상으로서의 “심리적 문화적응”을 구분하였는데, 심리학에서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을 가리지 않고 문화적응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정진경 & 양계민, 2004). 집단수준에서의 문화적응은 사회적 구조와 제도, 문화적 관습의 변화를 가져오며, 개인적 수준에서는 언어, 음식, 의복 등의 변화나 정체성의 변화와 같은 개인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정진경 & 양계민, 2004).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접촉하는 한 문화적응은 계속되며, 필수적으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구차순, 2007).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응 현상은 다양하며 각 개인이나 집단마다 적응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문화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한다(Berry, 1990). 따라서 문화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일어나는 문맥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Rohmann, Piontkowski, & van Randengorgh, 2008) 이는 이민자에게 주어진 문맥적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Steiner, 2009). 고려해야 할 문맥적 요인으로는 이민자 개인의 성격, 이민자들의 출신국, 이민자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자원, 출신국, 현재 거주지, 정착지 언어의 수준 등이 있다(Schwartz, Unger, Zamboanga & Szapocznik, 2010).

문화적응에 있어서 “사회문화 적응”과 “심리적 적응”은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의 개념으로 간주된다(Searle & Ward, 1990; Ward & Kennedy, 1992; Ward, Bochner & Furnham, 2001;

최운선, 2007). Hammer, Gudykuns와 Wiseman (1978)은 적응의 세 가지 차원으로 “사회제도에 대처하는 능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능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을 제시했고, Grove와 Torbiorn(1985)은 “사회적 적응”과 “인지적 적응”이라는 적응의 두 가지 차원을 밝히면서 사회적 적응은 행동에 있어서의 사회적 적응성(social applicability of behavior)을, 인지적 적응은 환경에 대해서 개인이 완전하고 분명한 견해를 갖는 것이라고 했다. Searle와 Ward(1990)는 문화 적응을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 적응”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서 심리적 적응은 내적인 심리적 결과로서 문화정체성과 정신건강,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의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며 사회문화 적응은 새로운 환경과 연관된 외적 행동적 결과로서, 가족생활, 직장, 학교 등에서 일상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Ward(1996)는 “심리적 적응”을 개인의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복지로, “사회문화 적응”을 새로운 곳에서 문화적으로 적응하고 일상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재정의 했으며(최운선, 2007), Lin(1997)은 문화적응을 “물질적 적응”, “공식적 사회구조에서의 적응”, “사회문화 적응”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물질적 적응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존기술을 습득을 의미하며, 공식적 사회구조에서의 적응은 새로운 정착지의 공식적 사회조직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문화 적응은 새로운 정착지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미묘한 문화적 기준과 새로운 가치방향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Lin, 1997).

이처럼 학자마다 약간씩 다른 용어로 문화

적응을 설명하였으나, 문화적응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사회문화 적응과 심리적 적응이다(Searle & Ward, 1990; Ward & Kennedy, 1994; Ward, 1996).

사회문화 적응

문화적응의 두 가지 차원 중 하나는 사회문화 적응이다. 적응에 있어서의 행동적 측면을 설명하는 사회문화 적응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여 유능성을 발휘하는 것(Word & Kennedy, 1994), 새로운 환경에서의 가족, 직장, 학교 등에서 일상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Ward, 1990)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회문화 적응에는 이주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 특히 언어의 습득과 다양한 제도적 규정들에 대한 이해, 이주사회에서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 등이 포함된다(김영란 2006; 최운선, 2007).

사회문화 적응은 이주민이 이주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적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문화와 타협하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학습 또는 사회적 기술 습득과 관련 있고, 사회 학습적 관점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최운선, 2007).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변인으로는 문화적 지식, 문화적 유사성(Rudmin, 2003), 문화적 차이 혹은 거리감(Searle & Ward, 1991; Ward & Kennedy, 1993), 문화 정체성, 언어 능력, 주류사회 구성원과의 접촉 등이 있고(Ward & Kennedy, 1992; Ward & Kennedy, 1993), 거주 기간 (Torbiorn, 1982; Armes & Ward, 1989; Searle & Ward, 1990;

Ward & Kennedy, 1992, 1993; Ataca & Berry, 2002), 문화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 능력, 상호작용 방식, 주류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Fontain, 1986; Furnham & Bochner, 1986; Black & Stevens, 1989; Searle & Ward, 1990; Ward & Kennedy, 1992), 정체감 등과 같은 문화학습과 사회기술을 지지해주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Searle & Ward, 1990; Ward & Searle, 1991; Ward & Kennedy, 1993, 1994), 이민국의 문화나, 타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은 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Church, 1982). 이처럼 사회문화 적응은 인지적 요소나 사회기술 획득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Ward & Kennedy, 1992; 1993). 높은 학력이나 소득 수준 같은 자원 역시 사회문화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성별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여성의 경우 새로운 문화에서 학습할 기회의 빈약, 기회로부터의 고립, 가정의 문화를 유지할 책임 같은 전통적 역할분담으로 인해 사회문화 적응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정진경 & 양계민, 2004).

심리적 적응

문화적응의 다른 한 가지 차원은 심리적 적응이다. 적응에 있어서 정서적, 감정적 측면 등의 내적 결과로 나타나는(최운선, 2007) 심리적 적응은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심리적 안녕감(Ward & Kennedy, 1994), 문화정체성, 정신건강, 만족감을 가지는 것(Searle & Ward, 1990)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심리적 적응을 안녕감이나 우울, 불안, 긴장, 피로감 등의 무드 상태로 정의하기도 한다(정진경 & 양계민, 2004).

심리적 적응은 개인의 성격, 생활변화 사건,

대처 양식, 통제 의 소제, 관계에서의 만족감, 정체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등의 영향을 받는다(Berry, 1997; Ward & Kennedy, 1996; 1999). 예를 들면 개인의 유연성, 내적 통제, 관계의 만족감, 개입 지향적 대처 스타일, 유머의 사용 등은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잦은 생활변화, 외로움, 스트레스, 회피적 대처스타일 등은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준다(Berno & Ward, 1998; Searle & Ward, 1990; Word & Rana-Deuba, 1999; Ward & Kennedy, 1999). 심리적 적응과 관련되는 기타 변인들로는 개인의 성격, 사회적 지지, 대처 지식과 기술, 문화적응 방식,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 등이 있을 수 있다. 특정 문화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기술은 심리적 적응을 촉진시키는데 그 중 대표적 변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다(Gudykunst & Hammer, 1988). 의사소통 능력과 심리적 적응은 항상 직선적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에서 언어능력이 심리적 안녕과 적응 그리고 일반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직장생활을 덜 하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적응수준이 더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 수준이 더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적응을 잘 하고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진경 & 양계민, 2004).

이처럼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 적응은 개념적으로, 경험적으로 구분되지만 서로 관련성을 가진다. 이민자가 주류 사회의 구성원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즉 사회문화 적응을 이루면 안정감과 만족감이 향상되는 등 심리적으로 적응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 맺고, 주어진 과

제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등의 사회문화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다(구차순, 2007).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을 “만족감”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며, 이들이 결혼을 위하여 이민을 온 여성인 것을 고려하여 결혼 만족도와,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통해 측정할 것이다

결혼 만족감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의 한 가지 측면은 결혼 만족도이다. 결혼 만족감 즉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충족감은 개인의 삶 전체에서 느끼는 행복감 및 심리적 안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전혜정, 민성혜, 이민영, 2009). 결혼 만족감은 배우자에 의해 경험되는 불행감, 만족감, 기쁨 등의 주관적 느낌을 나타내는 태도변인(Hawkins, 1969),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생각(Roach, Frazier & Bowden, 1981),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정승혜, 1988; 유영주, 1979)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결혼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를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과의 일치 정도, 혹은 개인의 기대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비교(박정숙 외, 2007), 결혼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 정도에서 오는 주관적 만족(김명자, 1985)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결혼을 통해 이주를 선택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결혼 만족도는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삶의 만족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적응의 다른 한 가지 측면은 삶의 만족도이다. 이는 자신의 전반적인 인생에 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일컫는 개념으로(Meeberg, 1993) 삶의 질, 심리적 안정감, 주관적 안녕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거나(오혜경, 정덕진, 2010; 박자경, 2009), 이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박자경, 2009). Dinner(1994)는 객관적 삶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 즉 주관적 만족 수준이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 경험의 정도라고 정의했고, Burr(1979)는 일정한 목표나 요구의 달성에 대한 심리적 상태 혹은 주관적 감정 상태라고 정의 했다.

문화적 역량

국제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넓게는 국제적 비즈니스 업무에서 좁게는 다문화 가족의 삶에 이르기까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 즉, 문화적 역량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Fantitni, 2000).

일반적으로 역량(competence)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미 어떤 것을 다루기에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개발 하려는 의지 또한 충분하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Salo-Lec, 2006). Roc(2002)는 역량을 어떤 일이나 의무나 역할을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학습된 능력으로 정의했는데, 이러한 정의는 특정한 일을 할 때 수행되는 특정한 형태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특정한 유형의 지식,

기술, 태도가 통합된 것이다. Roc(2002)는 지식, 기술, 태도와 같은 기본적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개발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했다.

문화적 역량이란 새로운 문화적 상황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새로운 문화에서 적절한 행동 패턴과 그것들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법을 배워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문맥에서 수용되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King, Sims, & Osher, n.d.).

일반적으로 다른 문화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는 잘못된 문법을 사용했을 때라기보다는,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을 경우이며(Fantini, 2009), 문화적 역량은 타 문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Wikipedia). 따라서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고, 적절하고 수용 가능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뿐 아니라, 문화적 민감성과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 그리고 상호작용 할 때 타인의 가치, 관점, 삶의 방식,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자신의 가치와 관점을 분명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에 대한 자기인식 등이 요구된다(Fantini, 2009).

문화적 역량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 등장한 용어이기 때문에 아직은 일치되고 명확한 정의가 없다(Fantitni, 2009). 현재까지 다양한 의미로 문화적 역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개념을 다른 용어로(예: global competence, international competence, multicultural competence 등) 설명하기도 하며(Fantitni, 2001; Fantitni, 2009), 문화적 역량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용어들(cross-cultural adjustment, cross-cultural awareness, cross-cultural effectiveness, cultural competenc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 용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잘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각 용어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제한된 관점만을 언급하고 있다(Sinicrope, Norris & Watanabe, 2007).

문화적 역량 관련 연구와 문헌들은 “개인의 국제적인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역량에 대한 논의에는 다양한 차원과, 구성요소들이 포함되며,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예: 의사소통, 교육, 심리학 등)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Fantini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문화적 역량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하였는데, 비교적 다른 것들에 비해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Fantini(2009)는 문화적 역량을 자신과 다른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 할 때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의 총체, 혹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정의했다(Fantini, 2009). 문화적 역량을 정의할 때, 그는 특별히 “수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추상적 개념인 “역량”과 실제적인 형태의 “수행”이 상호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역량은 그 사람의 수행을 관찰함으로써 더 잘 알 수 있다(Fantitni, 2001). 여기서 “효과적이다”와 “적절하게”라는 말은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데, 효과적이라는

말은 제2의 언어-문화적 상황에서, 개인의 어떠한 “수행”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고, 적절하다는 말은 개인의 “수행”이 주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인지되는가와 관련이 있다(Fantini, 2009). 즉 문화적 역량은 자신의 수행에 대하여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느끼며, 그 수행이 주류국 사람들 에게도 적절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Fantini에 의하면 문화적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 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오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의 관심이나 필요와 관련한 무언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의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며(Fantini, 2000, 2007, 2009), 지식, 긍정적인 태도, 기술, 인식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때때로 문화적 역량(ICC)의 구조를 인식(awareness), 태도(attitude), 기술(skill), 지식(knowledge), 언어의 유창성(language proficiency)의 다섯 가지 하위유형으로 보기도 한다(Fantini, 2000, 2007, 2009).

문화적 역량은 개발될 수 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이 일단 어떠한 문화적(intercultural) 접촉이 시작되면, 오랜 과정 속에서 때때로 침체와 퇴보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 될 것이다(Fantini, 2000). 그러나 아무리 문화적 역량이 개발되었다 해도 모국의 언어-문화 시스템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원어민처럼 완전하고 유창하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은 끝나는 시점 없는 평생의 과정이며, 완전한 문화적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Fantini,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역량의 발달 정도는 개인의 동기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Fantini, 2001).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에서 그들처럼 행동 할 수 있기까지 바라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되는 것까지 바라며, 어떤 사람들은 단지 살아남기만을 바랄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과 의지를 가진 개인은 타문화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수준의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Fantini, 2001).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단 기간 한국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이주민이 아닌, 영구적으로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에 동화되도록 돕는 근시안적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점차 다문화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사회는 진정으로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응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나 주변인, 서비스 대상자, 재 문화화 대상자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을 자신의 삶과 적응의 주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들이 수동적 동화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여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화적 역량이 이들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 수준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

고, 아울러 문화적 역량이 이들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려고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문화적 역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문화적 역량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 2. 문화적 역량이 높을수록 문화적응도는 높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현재 경북 P시와 D시, 경남 B시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1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전화와 메일로 지역의 여성문화회관, 다문화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인권센터, 종교기관, 여성회, YWCA 등 관련 기관에 연구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 중 협조 의사를 밝힌 기관에서 연구대상이 선정 되었다. 총 185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나 이 중 모든 문항에 같은 답으로 표기 하거나 설문을 끝까지 완수하지 않은 32명을 제외하고, 153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거주 지역은 경북 P지역 71명(46.4%), 경남 B지역 77명, 경북 D지역 5명(3.3%)이었으며, 출신국 별로는 베트남 64명(41.8%), 중국 46명(30.1%), 필리핀 23명(15%), 일본 15명(9.8%)이었고, 기타 지역 출신으로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태국 출신이 각각 1명씩 총 5명(3.3%)이었다. 이 중 55명(37.4%)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취득 중에 있었고, 92명(62.6%)는 한국 국적이 없는 상태였다. 나이는 20대(50.3%)와 30대(32.7%)가 가장 많았으며, 남편과의 나이차는 11살-20살 차 나는 경우(48.0%)가 가장 많았고, 31살-40살 차 나는 경우(3.4%)도 있었다. 연구대상자들 중 35%정도가 대학원 졸업(2%)을 포함하여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35.5%)을 가졌으며, 약 66%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학력이 남편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직업은 67%의 여성이 특정 직업 없이 가정주부라고 응답했으며, 원어민 강사나 다문화 강사(11.5%), 번역 및 통역(3.3%)등도 있었다. 결혼기간은 5년 이하(66.5%)가 가장 많았고, 약 88%정도가 10년 이하였으며, 거주 기간은 결혼기간과 거의 일치했다.

절차

예비 조사는 2009년 12월 경북 P시에 거주하는 20명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예비조사 후, 대상자들의 설문에 대한 이해수준을 반영하여 어렵다고 지적된 단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쉽게 풀어서 쓰는 등의 수정작업을 거쳤다. 또한, 예비조사 대상자들의 한국어 이해수준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몇 개의

언어로 설문지를 번역하기로 결정했다

설문지 번역은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통계자료에서 전국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출신국을 참고하여 현재 한국에서 한국사 석사과정에 있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과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중국 출신 유학생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교포학생이 각각 수행하였고, 번안된 설문지는 다시 각각의 언어에 능통한 다른 원어민 유학생에게 감수를 받은 후 사용했다.

설문조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여성문화회관, 다문화지원센터 등 규모가 큰 기관에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및 유의사항 등을 공문으로 보내어 기관 담당자가 다문화 교사나, 담당 실무자, 방문 교사 등을 교육 한 뒤 설문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그 밖에 교회, 여성회, 이주여성인권센터, YWCA 등 작은 규모의 기관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을 실시했다

측정도구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문화적 역량, 사회문화 적응, 심리적 적응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중 대상자에 맞게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나이, 남편의 나이, 출신국, 국적취득 여부, 거주기간, 거주 지역, 결혼기간, 동거가족, 자녀의 성별과 나이,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모국에서의 직업, 현재 직업, 남편의 직업, 월수입, 모국에서의 종교, 현재의 종교, 종교 활동

빈도, 국제결혼 한 이유를 묻는 1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 척도는 Fantini(2007)가 개발한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의 문화적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한 뒤, 한국 실정에 맞게 그리고 여성이민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화적 역량 점수는 즉 문화적 지식(11문항), 문화적 태도(10문항), 문화적 기술(8문항), 문화적 인식(14문항)에서 얻은 점수의 합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문화적 지식, 태도, 기술, 인식 각각에 대한 만족도, 중요도, 필요성을 묻는 3개의 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문화적 지식

문화적 지식(cultural knowledge)은 “한국문화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고 있다” “가정, 사회, 직장에서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고 있다” 등의 11개의 질문에 대해서 각각 “전혀 아니다”(0)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식 6점 척도로 측정했다.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α 값은 0.921이었다.

문화적 태도(Cultural attitude)

문화적 태도(cultural attitude)은 “한국 사람들에게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고 한다” “한국말로 의사소통 하려고 하고,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적절하게 행동하려고 한다” “새로

은 문화에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한국인들의 행동, 가치관, 태도, 생활양식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한다” 등의 13개의 질문에 대해서 각각 “전혀 아니다”(0)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식 6점 척도로 측정했다.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α 값은 0.893이었다.

문화적 기술

문화적 기술(cultural skill)은 “한국인들과 상호작용 할 때 유연하게 대처 한다” “행동이나 옷차림을 한국문화에 맞춘다” “생활양식이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알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실제로 활용 한다” “한국인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거나 오해가 생겼을 때 갈등이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한다” 등의 10개의 질문에 대해서 각각 “전혀 아니다”(0)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 6점 척도로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α 값은 0.834였다.

문화적 인식

문화적 인식(cultural awareness)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나의 부정적 반응들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보는지 알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에는 한국의 문화적 가치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등의 18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전혀 아니다”(0)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 6점 척도로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α 값은 0.942였다.

사회문화 적응

사회문화적 적응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Ward와 Kenney(1999)의 “Socio-cultural Adaptation Scale”을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했다.

“한국의 문화적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한국 사람의 유머나 농담을 이해하는 것”, “한국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현재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2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어렵다”(1점)에서 “전혀 어렵지 않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문화적 적응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α 값은 .955였다.

심리적 적응

심리적 적응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측정했다.

결혼 만족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원래 Roach에 의해 73문항으로 만들어졌다가 Roach, Frazier와 Bowden(1981)가 48문항으로 재구성한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다시 노명희와 이숙(1991)의 예비조사를 거쳐, 허윤정(1997)에 의해 18문항으로 압축 구성한 것을 사용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식 척도로 평가하며, 각 문항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애정표현을 많이 하고 산다” “나는 우리 부부관계가 잘 되길 바라는 편이며, 내 역할을 잘 하려고 한다” “결혼생활은

나를 너무 구속 한다”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등 결혼생활과, 그것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 정도를 묻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α 값은 .936이었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에 의해 개발된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류연지(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했다.

척도는 “나의 삶은 거의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상태에 가깝다” “다시 산다고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 것이다” 등의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5)”의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5개 문항의 값을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α 값은 .904였다.

결 과

연구 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단순 회귀분석,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1.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적 역량의 하위유형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문화적 역량 하위유형 별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74(SD=.822)로 문

표 1. 문화적 역량 수준

변수	M(SD)	N
문화적 지식	2.95(.920)	144
문화적 태도	3.74(.822)	150
문화적 기술	3.33(.824)	148
문화적 인식	3.31(.801)	141

화적 태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적 기술(M=3.33, SD=.824), 문화적 인식(M=3.31, SD=.801), 문화적 지식(M=2.95, SD=.920) 순이었다.

문화적 역량 하위유형 각각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만족도, 중요도, 필요성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도록 한 후,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다.

문화적 역량 하위유형 각각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5점 만점에 3점대로 중간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그 중 문화적 태도에 대한 만족도(M=3.43, SD=.784)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적 기술(M=3.27, SD=.771), 문화적 인식(M=3.20, SD=.720), 문화적 지식(M=3.14, SD=.814) 순이었다.

중요도는 5점 만점에 3점 후반에서 4점 초반대로 중간 정도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 문화적 지식(M=4.10, SD=.796)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문화적 기술(M=4.03, SD=.678), 문화적 태도(M=3.91, SD=.710), 문화적 인식(M=3.89, SD=.766) 순이었다.

필요성 역시 5점 만점에 3점 후반에서 4점대에 위치하여 중간정도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중 문화적 지식(M=4.20, SD=.698)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문화적 기술(M=3.93, SD=.726), 문화적 인

표 2. 문화적 역량의 만족도, 중요도, 필요성

구분	변인	N	M(SD)
만족도	지식	153	3.14(.814)
	태도	153	3.43(.784)
	기술	153	3.27(.771)
	인식	153	3.20(.720)
중요도	지식	153	4.10(.796)
	태도	153	3.91(.710)
	기술	153	4.03(.678)
	인식	153	3.89(.766)
필요성	지식	153	4.20(.698)
	태도	153	3.64(.792)
	기술	153	3.93(.726)
	인식	153	3.75(.765)

식(M=3.75, SD=.765), 문화적 태도(M=3.64, SD=.792) 순이었다.

연구문제 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수준을 사회문화 적응과 심리적 적응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심리적 적응은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통해 측정했다.

각각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한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사회문화적응 점수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09점(SD=.676)으로 보통 정도의 적응 수준을 보였고, 결혼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5점(SD=.763)으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7점 만점에 3.07(SD=1.356)점으로 약간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적응수준

변인	N	M(SD)
사회문화적응	124	3.09(.676)
심리적 적응	137	3.55(.763)
삶의 만족	151	3.07(1.356)

연구문제 3.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 역량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 역량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 따른 문화적 역량 평균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나이, 출신국, 거주기간, 거주 지역, 결혼기간, 교육수준, 직업, 월수입 등 전체 17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거주지역’, ‘남편의 학력’, ‘가정 경제 수준’의 3개의 변인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 지역에 따른 문화적 역량

거주 지역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101, p<.01). 경북 D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이 가장 높았고(M=152.80, SD=11.735), 그 다음으로 경남 B지역(M=149.57, SD=26.892), 경북 P지역(M=132.22, SD=31.007) 순이었다.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경북 D지역 여성들이 경북 P지역과 경남 B지역 여성들 보다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남편의 학력에 따른 문화적 역량

남편의 학력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050, p<.01). 남편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여성의 문화적 역량이 가장 높았고(M=169.50, SD=23.335),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M=149.62, SD=23.675), 중학교 졸업(M=141.22, SD=35.989), 초등학교 졸업(M=135.92, SD=30.074), 대학교 졸업 이상(M=128.05, SD=33.738) 순이었다.

집단 간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M=149.62, SD=23.675)이 남편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M=128.05, SD=33.738)보다 문화적 역량 점수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학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χ^2 은 49.031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편이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2명으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의 66.7%를 차지했고, 대학졸업은 25명으로 전체 대졸학력을 가진 여성의 50%를 차지했다.

월 소득 수준에 따른 문화적 역량

가정의 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393, p<.01). 월 소득 301만원 이상의 경우 문화적 역량이 가장 높

표 4. 거주지역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 평균 비교

구분	N	M(SD)	F	Scheffe
경북 P지역 (1)	63	132.2231.007	6.101**	(3)>(1)*
경남 B지역 (2)	61	149.5726.892		
경북 D지역 (3)	5	152.8011.735		
합계	129	141.2229.788		

* p<.05 ** p<.01

표 5. 남편의 학력 수준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 평균 비교

구분	N	M(SD)	F	Scheffe
초졸 이하 (1)	12	135.92(30.074)	4.050**	(3)>(4)*
중졸 이하 (2)	9	141.22(35.989)		
고졸 이하 (3)	65	149.62(23.675)		
대졸 이하 (4)	39	128.05(33.738)		
대학원 이상(5)	2	169.50(23.335)		

* p <.05 ** p<.01

표 6. 가정의 월 소득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 평균 비교

구분	N	M(SD)	F	Scheffe
(1) 100만원 이하	11	128.36(35.444)	3.397*	(4)>(1)*
(2) 100-200만원	54	141.93(28.083)		
(3) 201-300만원	28	143.61(28.790)		
(4) 301만원 이상	9	169.33(28.570)		

* p<.05 ** p<.01

있고(M=169.33), 그 다음으로 201-300만원(M=143.61), 101-200만원(M=141.93), 100만원 이하(M=128.36)순으로, 가정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월 소득 301만원 이상인 집단이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집단 보다 문화적 역량 평균 점수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문제 4. 문화적 역량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문화적 역량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역량 하위 변인을 독립변수로 두고, 적응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두어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문화적 역량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역량은 사회문화 적응($R^2=.164$, $B=.272$, $p<.001$), 삶의 만족($R^2=.161$, $B=.909$, $p<.001$), 결혼 만족도($R^2=.079$, $B=.128$, $p<.001$)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문화 적응 점수와 심리적 적응 점수를 합한 점수인 문화적응($R^2=.267$, $B=.508$, $p<.001$)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문화적 지식, 기술, 태도, 인식이 적응 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문화적 역량의 하위유형들의 적응 변인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네 가지 영역 중 문화적 지식($\beta=.0345$, $p<.001$)만이 사회문화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삶의 만족에는 문화적 지식($\beta=0.207$, $p<.05$)과 문화적 태도($\beta=.274$, $p<.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결혼만족에는 문화적 태도($\beta=.305$, $p<.05$)

표 7. 문화적 역량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인	종속 변인	R ²	F	B	t
문화적 역량	사회문화적응	.164	20.978***	.272	4.580***
문화적 역량	삶의 만족	.161	24.361***	.090	4.936***
문화적 역량	결혼만족	.079	9.841**	.128	3.137**
문화적 역량	문화 적응	.267	35.643***	.508	5.970***

표 8. 문화적 역량 하위유형들이 사회문화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51.431	8.419		6.109	.000
문화적지식	.711	.208	.345	3.419	.001
문화적태도	.370	.290	.160	1.274	.205
문화적기술	-.221	.401	- 0.076	- 0.551	.583
문화적인식	.176	.267	.098	.660	.511

R Square=.208, Adjusted R Square=.178, F(p)=6.829 (.000)

표 9. 문화적 역량 하위유형들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192	2.707		.810	.420
문화적지식	.136	.063	.207	2.173	.032
문화적태도	.224	.092	.274	2.438	.016
문화적기술	-.067	.130	-.067	-.517	.606
문화적인식	.055	.083	.093	.665	.507

R Square=.185, Adjusted R Square=.159, F(p)=7.048 (.000)

표 10. 문화적 역량 하위유형들이 결혼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42.991	5.967		7.204	.000
문화적지식	-.046	.142	-.033	-.322	.748
문화적태도	.492	.201	.305	2.443	.016
문화적기술	.240	.282	.120	.851	.397
문화적인식	-.055	.180	-.046	-.304	.761

R Square=.185, Adjusted R Square=.159, F(p)=7.048 (.000)

표 11. 문화적 역량 하위유형들이 문화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96.186	12.022		8.001	.000
문화적지식	.807	.298	.264	2.705	.008
문화적태도	1.189	.400	.362	2.976	.004
문화적기술	.113	.560	.027	.202	.840
문화적인식	.035	.374	.014	.094	.925

R Square=.306, Adjusted R Square=.277, F(p)=10.461 (.001)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문화적응에는 문화적 지식($\beta=.264$, $p<.01$), 문화적 태도($\beta=.362$, $p<.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논 의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이 이들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혀 궁극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 개발과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은 경북 P시, D시, 경남 B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185명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이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32명을 제외하고 총 153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문화적 태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적 기술,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순이었으며, 이중 문화적 태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문화적 지식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문화적 태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문화적 역량 하위영역 중 문화적 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 중 가장 점수가 낮았던 문화적 지식에 대하여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동기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연구대상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문화적 지식에 대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 스스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맞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을 때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대상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수준은 보통 정도의 적응수준을 보였으며, 결혼만족도는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고, 삶의 만족은 약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와 전반적으로 문화적응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7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거주 지역, 남편의 학력, 경제 수준의 3개 변인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 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비교해볼 대상은

없지만, 문화적 역량이 인구사회학적 요인 보다는 Fantini(2001)가 언급한 동기나 의지 같은 개인적 차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antini(2001)는 “인간은 각기 다양한 목적과 의지 수준을 가지고 다문화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문화적 역량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인구사회학적변인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문화적 역량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북D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이 경북P지역과 경남B지역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 특성이 문화적 차이를 가져왔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D지역 기관의 사정상, 다문화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만이 설문에 참여한 점 즉, 표집과정상의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D지역 참여자들은 모두 다문화 강사로 비교적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도가 높고, 일정 수준 이상의 다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역량 척도가 다문화 강사와 일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잘 변별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남편의 학력에 따라 문화적 역량은 차이를 보였다. 남편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졸, 중졸, 초졸, 대졸 순으로 나타나 대학 졸업 학력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들의 문화적 역량 수준도 높았다. 일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넓은 이해의 폭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송정

자, 1989; 이정순, 1991; 윤형숙, 2005) 남편의 높은 학력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력은 직업과 소득 같은 성취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박정숙 외, 2007) 남편의 높은 학력이 가정 경제 수준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과 심리적 만족감(Ross, Mirowsky, & Goldstee, 1990; 이동원, 1988; 강은령, 1989; 최규련, 200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남편의 학력에 따른 문화적 역량에 대하여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의 문화적 역량이 남편이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남편의 학력과 여성의 학력을 교차분석 해본 결과 남편이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언어적, 구조적, 상황적 한계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받은 교육이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신국에서 높은 학력을 가지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던 여성들일수록 새로운 문화에서 적절한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큰 경향이 있다(김이선, 2008). 같은 맥락에서 결과를 해석해 보면, 출신국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회활동을 했던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자신의 역량과 수행 능력에 대한 비교적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지하여 자기 보고식 설문에서 스스로 낮은 점수를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여

성들의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왔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고, 심리적 만족이 높아지며(Ross, Mirowsky, & Goldstee, 1990; 이동원, 1988; 강은령, 1989; 최규련, 2005)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적 역량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는데, 문화적 역량은 사회문화적 적응, 삶의 만족과 결혼만족도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문화적응 점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문화적 역량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준다.

문화적 역량의 각 하위요인들이 문화적응 변인들 각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보았는데, 사회문화적 적응에는 문화적 지식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삶의 만족에는 문화적 지식과 문화적 태도가, 결혼만족에는 문화적 태도가, 그리고 전체 문화적응에는 문화적 지식과 문화적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문화적 적응에 문화적 지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Ward와 Kennedy(1992, 1993)에 의해서 지지 되고, 결혼 만족도에 문화적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결혼 만족도 자체가 주관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태도변인(Hawkins, 1969)이며,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나 생각을 나타낸다고 한 Roach, Frazier와 Bowden(1981)에 의해 지지된다. 즉 문화적 태도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화적 태도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차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려고 적극적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문화적 역량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고, 이들 중에서 특히 문화적 태도와 문화적 지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영역 모두 고루 발달 되어야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문화적 태도와 문화적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적 태도와 문화적 지식 교육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태도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모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키워주어야 한다. 일반 문화교육을 통하여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모국 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를 구체화 해주어 이들 스스로 문화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하고, 명확한 문화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떤 것을 더 많이 접할수록 그것에 대해 더 호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Zajonc, 1968; 1980)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확하고 풍부한 문화적 지식과 다문화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

고 자연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지식 측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한국 예절이나, 규범들, 가족문화 등에 국한된 지식을 넘어서 좀 더 폭넓은 문화 지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음식이나 가족예절 등 가정문화 뿐 아니라 한국 역사나, 정치, 경제 등 보다 일반적 영역으로 지식 교육의 폭을 넓히고,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단계,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 한국문화를 배우는 방법, 한국인들의 상호작용 방식 등 좀 더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 대한 문화 지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문화적 역량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연구를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 적응에 문화적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이라는 개념 자체도 명확하게 정리되어있지 않고, 그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수준이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연구 결과가 좀 더 경험적으로 지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거주 지역과 출신국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으며 현재,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응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여, 연구 결과를 전국의 모든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에 일반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현재 문화적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소외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기관의 서비스 유형이나 교육기간 등에 따라 문화적

역량이나 적응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데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적응의 주체로 바라보며, 이들의 적응과 문화적 역량을 다차원 적으로 살펴 본 첫 번째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문화적 역량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가 앞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응과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후속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응을 문화적 역량 측면에서 규명하는 연구가 계속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60.

권미경, 조용하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 리터러시 습득의 평생 교육적 함의.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2(3), 1-26.

김경은 & 정옥분 (1998).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1-49.

김명자 (1985).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 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4, 139-166.

- 김선희, 전영평 (2008).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책성 분석: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행정논총*, 46(4), 305-330.
-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 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217-252.
- 김연희 (2007).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 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 117-144.
- 김영란 (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45(1), 143-189.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7). 한국여성개발원.
- 김인철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포육진흥원* (2006). 2006문화예술포육 정책 백서.
- 박자경 (2009). 장애인의 삶의만족도 모형 구축 및 검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재규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회*, 17(2), 75-105.
-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박주희, 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 박혜숙, 이금재 (2007). 여성노인의 건강행위, 신체기능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3(2), 115-122.
- 변화순, 이미정, 김혜영, 황정미, 이선형 (2008).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해정, 김형모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359-389.
-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심인선 (2007). 결혼이주여성의 성인교육 경험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0(4), 77-97
- 엄한진 (2006). 전 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45-73. 동북아시아대 위원회
- 오경석 (2007).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오혜경, 정덕진 (2010). 장애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 *재활복지*, 14(3), 151-173.
- 유영주 (1979). 한국 도시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4, 1-13.
- 윤인진 (2000).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선옥 (2007).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운동과 다문화주의.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81-

107. 한울 아카데미
 장미혜, 이선주, 양애경, 최현미, 송성실, 송유나 (2008).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II):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 방향 (총괄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17(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혜정, 민성혜, 이민영 (2009). 결혼이주여성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14(2). 5-27.
-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정귀자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과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기선, 김영혜, 박경은, 이은아, 박지혜, 이승애, 이지혜 (2007).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정승혜 (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정천석, 강기정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1), 5-23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141-181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로가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다각적 협력 통해 다민족 다문화사회 대비한다. 2009년 9월 25일 보도 자료.
- 행정안전부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Y.: Hott rinehar and wiston
- Armes, K., & Word, C. (1989). Cross-cultural transitions and sojourner adjustment in Singapor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273-275.
- Atace, B., & Berry, J. W. (2007). Cultural factors in stress. *Encyclopedia of stress*, 672-678.
- Barker, R. (1991). The social work dictionary(2nd ed). Washington, D.C: NASW press.
- Berno, T., & Ward, C. (1998).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New Zealand.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ety of Australasian Social Psychologists, Christchurch, New Zealand.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s. In R. Brislin(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232-253. Newbury Park, CA: Sage.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Black, J. S., & Stevens, G. K. (1989). The influence of the spouse on American expatriate adjustment and intent to stay in Pacific Rim overseas assignments. *Journal of Management* 15,

- 529-544
- Burr, W. R. (1979).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66-78.
-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lingual Matters*. Philadelphia, PA
- Church, A. T. (1982). Sojourner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91, 540-572.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9.
- Fantini, A. E. (2000). A central concern: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SIT Occasional papers series, 1, Brattleboro VT: School for international training.
- Fantini, A. E. (2001). Exploring Intercultural Competence: A Construct Proposal. NCOLCTL. Fourth Annual Conference.
- Fantini, A. E. (2007). Exploring Intercultural Competence. Research report 7(1),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CSD); Global service institute,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Fantini(2009). Exploring Intercultural Competence: Developing, measuring, & monitoring. GS049. NAFSA 2009 Annual conference.
- Fortain, G. (1986). Role of social support systems in overseas relocation: Implications for intercultural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 361-378.
- Furnham, A., & Bochner, S. (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 London: Methuen.
- Germain, C. B., & Gitterman, A. (1996). The life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Advances in theory and practice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ibson, M. (2001).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Electronic resource). *Human Development*, 44(1), 19-23.
- Graves, T. D. (1967). Psychological acculturation in a tri-ethnic community.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23, 337-350.
- Grove, C. L., & Torbiorn, I. (1985). A new conceptualization of intercultural adjustment and the goals of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9, 205-233.
- Gudykunst, W. B., & Hammer, M. R. (1988). Strangers and hosts: An uncertainty reduction based theory of intercultural adaptation. In Y. Y. Kim & W. B. Gudykunst (Eds.), *Cross-cultural adaptation* (pp.106-139). Newbury Park, CA: Sage.
- Hammer, M. R., Gudykunst, W. B., & Wiseman, R. L. (1978). Dimensions of intercultural effectiveness: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382-393.
- Hawkinsm J. L. (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647-648
- King, M. A., Sims, A. & Osher, D. (n.d.). How is cultural competence integrated in education. Texas Department of Health, National Maternal and Child Health Resource Center on Cultural Competency. Retrieved from http://cecp.air.org/cultural/Q_integrated.htm#def
- Lazarus, R. (1976). *Patterns of adjustment*. Tokyo: McCraw-Hill kogakusha, Ltd.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Publishing Company.
- Lin, Z. (1997). Ambiguity with a purpose: The shadow of power in communication. In Earley, P. C. and Erez, M. (Eds), *New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industrial organization psychology*, 363-376, San Francisco: The new Lexington Press.
- Meeberg, G. A. (1993). Quality of life: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 32-38.
-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3), 537-546.
- Redfield R., Linton R.,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 Roe, R. A. (2002). What makes a competent psychologist? *European Psychologist*, 7, 192-202.
- Rohmann, A., Piontkowski, U., & van Randengorgh, A. (2008). When attitudes do not fit: Discordance of acculturation attitudes as an antecedent of intergroup threa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337-352.
- Rudmin, F. W. (2003). Critical history of the acculturation psychology of assimilation, separation, integration, and marginaliz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7(1), 3-37.
- Salo-Lee, L. (2006). Intercultural competence in research and practic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for intercultural leadership and team work. In N. Aalto & E. Reuter(Eds.). *Aspects of Intercultural Dialogue* (79-92). In, Germany: Saxa-Verlag.
- Schwartz, S., Unger, J. B., Zamboanga, B. L., & Szapocznik, J. (2010). Rethinking the concept of accultur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5(4), 237-251.
- Searle, W., & Ward, C.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449-464.
- Searle, W., & Ward, C. (1991). The impact of value discrepancies and cultural identity on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of sojour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 209-225
- Sinicrope, C., Norris, J., & Watanabe, Y. (2007). Understand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A summary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technical report for the foreign language program evaluation project). *Second language studies*, 26(1), 1-58.
- Steiner, N. (2009). *International migrant and citizenship today*. New York, NY: Routledge.
- Torbiorn, I. (1982). *Living abroad: Personal adjustment and personnel policy in the overseas setting*. New York: Willey.
- Transcultural nursing(n.d.). Cultural competence. Retrieved from <http://www.culturediversity.org/cultcomp.htm>.
- Ward, C. (1996) Acculturation. In: Landis, D. & Bhagat, R. Editors (1996)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2nd ed. ed.), Sage, Thousand Oaks, CA, 124-147.
- Ward, C. (1997). Culture learning,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pathology: Three perspectives on acculturation. *Applied Psychology: An*

- International Review*, 46(1), 58-62.
- Ward, C., & Kennedy, A. (1992). Locus of control, mood disturbance, and social difficulty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 175-194.
- Ward, C., & Kennedy, A. (1993).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A Comparison of Secondary Students Overseas and at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8(2), 129.
- Ward, C., & Kennedy, A., (1994). Acculturation strategie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ocultural competence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8, 329-343.
- Ward, C., & Kennedy, A. (1996). Crossing cult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of cross-cultural adjustment. In: Pandey, J., Sinha, D. and Bhawuk, D.P.S. Editors, (1996). *Asian contributions to cross-cultural psychology* Sage, New Delhi, 289-306.
- Ward, C., & Kennedy, A.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
- Ward, C., & Kennedy, A. (2001) Coping With Cross-Cultural Transi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5), 636-642.
- Ward, C., & Rana-Deuba, A. (1999).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revisite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4), 422-442.
- Ward, C., & Searle, W. (1991). The impact of value discrepancies and cultural identity on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of sojour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2), 209-224.
- Wiseman, R. L. (2002).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n W. B. Gudykunst, & B. Mody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nd ed.), 207-224.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Zajonc, R. B. (1968). Attitudinal Effects of Mere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Webster, N., & McKechnie, J. (1978). *Webster's new twentieth century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Unabridged. New York: Collins World.
- 1 차원고접수 : 2010. 11. 5.
심사통과접수 : 2010. 12. 20.
최종원고접수 : 2010. 12. 23.

A Study of the effec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on Accultur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Urban Areas

MinJeong Kim

SungMan Shin

Hand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effects of cultural compete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their acculturation levels in order to find the basis for the provision of a service that will develop and re-enforce their cultural competence. In this study, the levels of socio-cultural adapt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 (marita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and cultural competence(cultural knowledge, cultural skill, cultural attitude, and cultural awareness) were examined in 153 women from Geongsangbuk-do Province (P City and D City) and Gyeongsangnam-do Province (B city). The results were used as a bas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ultural competence in acculturation levels. The level of socio-cultural adaptation was normal, while marital satisfaction was little bit satisfactory, and satisfaction with life was slightly dissatisfactory in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category. In the cultural competence category, cultural attitude levels rated the highest, followed by cultural skill, 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knowledge. Amongst these, the satisfaction with cultural attitude was the highest, while cultural knowledge was considered the most essential and the most necessary. cultural competence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socio-cultural adaptation, marital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life, and acculturation levels. In inspecting the relationship amongst cultural competence subcategories, cultural knowledge influenced socio-cultural adaptation, cultural attitude influenced satisfaction with life, and cultural knowledge along with cultural attitude influenced acculturation. This study is important in that it view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s the main subject of acculturation, explores their acculturation levels and cultural competence in a multi-dimensional manner, and draws research findings on the effects of cultural competence on acculturation.

Key words :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socio-cultural adapt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 cultural competence